

—
122년에 걸쳐 펴낸 그립 형제의
《독일어 사전》
—

최경은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1. 들어가며

독일 위키피디아에 ‘독일어 사전(Deutsches Wörterbuch)’을 검색어로 쳐 보면 그립 형제의 《독일어 사전(Deutsches Wörterbuch)》 항목이 바로 나온다. 사실 독일에는 ‘독일어 사전’이라 부를 수 있는 사전들이 무수히 많다. 예를 들면 《캄페(Campe)》, 《잔더스(Sanders)》, 《두텐(Duden)》 등도 독문학자라면 쉽게 알 수 있는 유명한 ‘독일어 사전’이다. 그러나 독일에서 ‘독일어 사전’이라고 하면 그립(Grimm)의 《독일어 사전》을 의미한다. 이는 그만큼 그립 사전이 독일의 대표적 인 ‘독일어 사전’임을 말해 준다.

그립 형제의 사전은 규모가 가장 크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독일어 사전’이다. 그러나 이 사전은 그립 형제가 만들기 시작했으나 끝을 맺진 못했다. A부터 Z까지 모두 32권으로 엮은 사전은 무려 3만 3,812쪽에 이르며, 1852년부터 1960년, 즉 108년에 걸쳐 편찬되었다(Haß-Zumkehr 2001:119). 여기에 14년의 준비 기간을 합치면 《독일어 사

전》 편찬 작업은 122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표제어는 40만~50만 개로 정확한 수치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표제어 서술에서 각 서술 담당자들이 서로 다른 스타일로 서술해 표제어의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Schmidt 1986:105). 《독일어 사전》에서 해당 표제어가 언제 누구에 의해 서술되었는지 알고 싶으면 1971년에 《독일어 사전》의 33번째 책으로 출간된 출처 목록의 부록을 찾아보아야 한다.

122년 동안 지속된 편찬 기간으로 인해 사전의 콘셉트도 통일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독일어 사전》은 두 번의 세계 대전과 독일 분단이라는 정치적 사건을 겪었으며, 분단으로 인해 사전 편찬소도 동베를린과 괴팅겐으로 각각 나누어졌다. 100명이 넘는 직원과 수많은 독어독문학 교수들이 《독일어 사전》 편찬 사업에 참여하였다. 문학 비평가 마르셀 라이히라니키(Marcel Reich-Ranicki)는 1999년 문고판 《독일어 사전》 광고에서 《독일어 사전》이 “독일어로 서술된 가장 흥미 있는 소설이며 가장 중요한 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말은 사전의 편찬 역사와 서술 규모를 일별해 보면 누구나 쉽게 수긍할 것이다.

2. 《독일어 사전》의 편찬 배경과 출판 역사

2.1. 《독일어 사전》 성립의 사회적 배경

그림 형제가 《독일어 사전》을 편찬하게 된 배경은 ‘민족 사전’이란 아이디어를 나오게 만든 정치 사회적 분위기였다. 독일이 40여 개의 군소 국가로 나뉘어 있던, 일종의 연방 국가였기에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상징물이 중요했다. ‘민족 사전’이라 함은 예를 들면 독일 건국에 대

한 헤르만 기념비(1838~1875)와 1813년 해방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쾰커슐라흐트 기념비(1863~1913)와 같이 독일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어야 했다. “우리 독일 민족이 언어 이외에 공통적이라고 할 만한 것을 도대체 가지고나 있는가!”라는 야코프 그림(Jakob Grimm, 1785~1863)의 탄식은 1840년대에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많이 인용되었고, 독일 민족을 상징해 줄 언어 작품의 탄생을 갈망하게 만들었다.

19세기는 독일에서 민족주의가 유행했던 시기로, 세분하여 말하면 애국주의로 시작하여 소비니즘으로 끝나는 세기였다. 후기 낭만주의 이래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위해 노력한 시민들은 자신을 애국주의자라 칭했다. 애국주의자는 지역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 소신을 갖고 활동했다. 그러나 1848년 혁명은 독일의 통일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혁명의 실패는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 참여에서 문화 참여로 전환하게 만들었으며, 독일의 문화 정체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1848년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급진적 민주주의자이든 입헌적 자유주의자이든 자신들이 진정한 애국주의자임을 자처했다.

이런 시대 배경에서 1830년부터 출판업자 카를 라이머(Karl Reimer)는 그림 형제에게 루터에서 괴테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어휘를 기재할 근대 고지 독일어(Neuhochdeutsch)¹⁾ 사전 편찬을 여러 번 제안한다. 괴팅겐 대학 교수로 사전 편찬을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형제는 이 거창한 제안을 거듭 거절했다. 그러나 정치적 스캔들이 이런 상황을 급

1) 독일어사에서 독일어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네 단계, 즉 고대 고지 독일어(750~1050), 중세 고지 독일어(1050~1350), 초기 근대 고지 독일어(1350~1650), 근대 고지 독일어(1650~현재)로 나뉜다. ‘루터에서 괴테까지’는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교회의 문에 고시하여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1517년에서 현재까지를(괴테는 1832년에 죽음) 의미한다.

변시켰다. 그림 형제를 포함한 괴팅겐 대학 교수들이 1837년 11월 18일에 1833년 하노버의 새 군주인 아우구스트 2세가 너무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무효로 선언했던 헌법 실행을 요구했다. 여기에 참여했던 소위 ‘괴팅겐 7인’은 국가 위협적 성향을 이유로 교수직을 박탈당했다. 그림 형제는 하노버 왕국에서 추방당했으며, 정치적 망명자로 이전 거주지였던 카셀로 돌아갔다. 이런 정치적 사건은 민족주의와 국제적인 연대감과 함께 그림 형제를 궁극적으로 당대 가장 유명한 독일인으로 만드는 동시에 무직자로 만들었다.

이때 라이머는 자신이 원하던 사전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려는 계획을 다시 시도했다. 그는 고문헌학자인 모리츠 하우스프트와 함께 1838년 3월 3일에 빌헬름 그림(Wilhelm Grimm, 1786~1859)에게 자신의 제안을 다시 고려해 보고 야코프도 설득해 보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그림 형제는 프로젝트의 엄청난 범위에 머뭇거렸지만, 라이머와 하우스프트가 4월 초 방문한 후 마침내 사전을 편찬하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전 출판은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괴팅겐 사건 후에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았던 독자적 학문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형제는 1838년 10월에 바이트만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 이전인 1838년 8월 29일에 라이프치히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독일어 사전》의 광고가 실렸는데, “새로운 사전은 루터에서 괴테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가늠해 보거나 측정해 보지 못했던 우리 조국의 무한한 어휘를 포괄하고 있다.” (Kirkness 1980:69)는 내용이었다.

2.2. 그림 형제의 《독일어 사전》 편찬 과정

122년에 걸친 《독일어 사전》의 편찬 역사는 4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는 그림 형제가 괴팅겐 대학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전은 우선 6, 7권으로 계획되었고, 6년에서 10년 정도면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사전 편찬 작업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전문가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 건강 악화, 1848년 혁명의 참여 등으로 야코프는 1849년 4월에야 비로소 첫 표제어의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야코프가 ‘A’, ‘B’, ‘C’를 맡고 일을 느리게 하는 빌헬름이 ‘D’를 맡았다. 사전 편찬의 어려움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야코프는 1850년 말에 게오르크 고트프리트 게르비누스(Georg Gottfried Gervinus)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인수 받은 대 사전이 납의 무게로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 시작의 어려움을 느끼게 될 때마다 그것은 바로 사전 작업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입니다(Ippel 1886:99).

1852년 3월 1일 바이트만 출판사에서 첫 번째 원고(‘A’에서 ‘Allverein’)를 광고한 소책자가 인쇄되었으며, 5월 1일에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14년 만에 최초의 원고가 완성되었다. 2년 후인 1854년 4월 13일 ‘A’에서 ‘Biermolke’까지의 표제어, 출처 목록, 머리말 등을 포함한 제1권이 마침내 출판되었다.

사전에 대한 독자의 반응은 처음에는 야코프와 출판사의 기대를 능가한 호평 일색이었다. ‘위대한 국민 작품’이라고까지 언급하는 호감을 가진 수많은 서평이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판 1만 부가 모두 팔렸

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가톨릭 쪽에서 《독일어 사전》의 표제어 ‘Ablass(면죄부)’를 근거로 사전의 프로테스탄트적인 성향을 비판했고, 칭찬 일색인 서평들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주 일반적이거나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다니엘 잔더스와 루트비히 부름으로 대표되는 언어학자들의 혹평이 이어졌다. 그들은 소문자 표기, 관례적이지 않은 정서법, 안티크바²⁾로 인쇄된 문장, 라틴어 어휘 설명 등에 이의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을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평가했다. 야코프 그림은 그들의 비판에 대해 사전의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두 마리의 거미(심술쟁이)가 이런 어휘 정원의 잎사귀 위로 기어와서 자신들의 독을 풀었다(《독일어 사전》 1권:118단).

지칠 줄 모르고 야코프는 《독일어 사전》의 원고를 계속 작성해 나갔다. 그동안 빌헬름도 알파벳 ‘D’ 부분을 작성했고 1855년 3월 16일 첫 원고를 라이머와 결별한 후 홀로 출판사를 이끌고 있는 히르첼에게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빌헬름의 서술은 세세한 부분에서 야코프의 원고와 스타일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작업의 속도도 무척 느렸다. 빌헬름은 1859년 12월 16일 죽음을 맞이했을 즈음에야 비로소 ‘D’를 끝낼 수 있었다. 이제 작업은 그동안 많이 쇠약해진 야코프의 차지였다. 그렇지만 그는 한 명의 보조원을 데리고 작업을 부지런히 계속해 나갔다. 사전 작업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야코프와 출판업자도 이

2) 안티크바는 로마체를 의미하며, 당시 독일에서 독일어 문헌은 프락투어(고딕체)로 인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 야코프는 1863년 9월 20일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때 그는 'Frucht' 항목까지 작업했다.

2.3. 그림 형제 사후의 《독일어 사전》 편찬 과정

야코프가 사망한 해에 “언젠가 사전을 계속 작업하는 계승자가 될 것임”(Kirkness 1980:261)을 예견했던 《독일어 사전》의 교정자 루돌프 힐데브란트(Rudolf Hildebrand, 1824~1894)와 카를 바이간트(Karl Weigand, 1804~1878)가 사전의 편찬 작업을 이어갔다. 힐데브란트는 'K'를 저술했고, 바이간트는 야코프의 마지막 표제어 'Frucht'에서 시작하였는데, 그 위치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각주를 달았다. 이것은 32권의 《독일어 사전》에서 단 하나뿐인 각주로 남게 되었다.

이 단어로 야코프 그림은 자신의 펜과는 유감스럽게도 영원히 이별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이어진 알파벳의 끝까지 나의 작업이 되었다(바이간트, 《독일어 사전》 4권:259단).

1871년 독일 최초의 민족 국가 탄생은 사전이 지니고 있었던 상징적인 기능도 변화시켰다. 즉, 사전은 이제 더 이상 '민족의 통일'이 아니라 문화적인 '독일의 상징'이 되어야 했다. 힐데브란트와 바이간트는 모두 고등학교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곧 사전 작업에서 그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것은 그들을 교수로 임명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이로써 《독일어 사전》은 이제 국가적인 사업이 되었다. 할레에서 1867년에 개최된 문헌학자 회의에서 북독일연맹은 사전 편찬을 위한 보조금 지불을 약속했고, 비스마르크는 상원위원회에 상정된 《독일어 사전》 지원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수상이 정신과

학 프로젝트에 비용을 조달하는 안을 승인한 유일한 사례였다. 비스마르크는 의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림의 《독일어 사전》은 의심의 여지없이 독일 지식인의 위대한 작품이며, 만약 이것이 미완성으로 머물러야만 한다면 그것은 아주 한탄할 일일 것입니다(북독일연맹 연방의회 회의 자료, 1868년 14호:2).

프로젝트는 1869년 연방 의회에서 인준을 받고 1878년까지 정상적인 국가 보조금, 즉 황제의 기밀비로 충당되었다. 의회에서 인준이 나기 직전에 편찬 작업에 참여한 젊은 독문학자 모리츠 하이네(Moritz Heyne, 1837~1906)는 1867년 표제어 저술자로서 힐데브란트와 바이간트(1872년 그만두었다)를 도우며, 《독일어 사전》의 편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편찬자 중 하나가 되었다.

비범한 언어학적 능력으로 존경받았지만 비판에 아주 민감했던 힐데브란트는 드물지 않게 단행본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표제어를 다수 저술하고, 게다가 아주 느리게 일을 진행했다. 구스타프 프라이타크는 여기에 대해 1884년 12월 25일에 하인리히 히르첼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그를 비판하고 있다.

힐데브란트는 점점 놀라워지고 있으며, 그는 ‘Gott’까지 서술하기 위해서 여전히 공책 10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Gott’는 2권, ‘Gurke’는 반 권의 공책이 필요할 것입니다(Freytag 1902:254).

1908년에서 1930년까지의 세 번째 단계는 다방면으로 서술의 통일

성이 시도되었다. 출간 속도의 지체는 그림 형제가 수집한 용례를 보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이었다. 《독일어 사전》 편찬 작업이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연구자 그룹 단위로 작업해야 하며, 작업 기술적으로도 변화가 있어야만 했다. 《독일어 사전》 편찬의 총괄은 베를린에 있는 프로이센 학술원의 독일어위원회가 맡았다. 재정 상태는 개선되었고 직원 수도 확충되었다. 괴팅겐에 편찬소도 설립되었다. 1908년에서 1913년까지 대략 200만 개의 새로운 용례가 아직 서술되지 않은 표제어를 위해 수집되었다. 3단계에서는 6번째, 17번째, 27번째 책이 출간되었다. 서술은 편찬 스타일 면에서 여전히 아주 달랐다. 모리츠 하이네, 마티아스 렉서(Matthias Lexer), 헤르만 분더리히(Hermann Wunderlich) 등이 주 저자였다.

네 번째 단계는 1930년 아르투어 뢰브너(Arthur Hübner)의 조직 개편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1910년부터 《독일어 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했으며, 표제어의 일관성 있는 구조를 사전 편찬의 콘셉트로 정하였다. 그는 표제어 서술의 시작 부분을 간결하게 하고 의미 부분은 일종의 서론 혹은 머리말로 규정하려고 시도했다. 의미 부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계적으로 서술되었고, 의미는 라틴어 등가어 대신에 독일어로 풀어 써서 설명되었다. 개별 의미들은 오늘날의 의미론 개념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여러 관점으로 설명되었다. 예를 들면 특정 전치사를 대동한 동사의 관련 영역이나 사용이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따라서 1930년부터 서술은 비록 어형의 역사가 전면에 나올지라도 이전과 비교해 의미를 더 많이 설명하는 양식으로 변했다. 뢰브너에 의해 이미 3단계부터 실행에 옮겨졌던 개혁은 이제 페터 디퍼스(Peter Diepers)에 의해 문서 형태로 정해지고 체계화되었다. 이로써 디퍼스는 《독일어 사전》 편찬 작업을 위한 지침을 작성한 최초

[표 1] 《독일어 사전》의 편찬 역사

	주요 저자	완성 어휘	전체 비율	서술 구간
1단계 (1838~1863)	그림 형제	27%	9%	A~Frucht
2단계 (1863~1908)	바이간트/ 힐데브란트	53%	43%	Frucht~gewirken / S~Stattlich / T~Todestag / V~Versitzen / W~Wallung
3단계 (1908~1930)	하이네, 분더리히, 렉서	8%	18%	Gewirken~Gezwang / Greander~Grün / Stattlich~Stein / Stob~Strahlen / Todestanz~Tort / U~Überweisen / Un~Unversagbar / Versetzen~Verwechseln / Vesche~Volksgefühl / Wallung~Weinlese / Wilb~Windschatten / Z~Zeiche / Zobel~zurecht
4단계 (1930~1960)	휘브너, 디퍼스	12%	30%	Gezwang~Gräzist / Grün~Gymnastik / Stein~sitzig / Strahlen~Szische / Törtchen~Tz / Überweisen~umzwingen / Unversagend~Uzvogel / Verwechseln~verzwungen / Volkgefüllt~vulkanisch / Weinlese~Wiking / Windschällig~Ysop / Zeichen~Zmasche / Zurecht~zypressenzweig

의 편찬자가 되었다.

《독일어 사전》 편찬소는 2차 세계 대전 중에도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 동·서독 분단 시대에 괴팅겐과 동베를린으로 각각 나누어진 편찬소에서 일했던 독일독문학자들은 ‘G’, ‘S’, ‘W’ 부분을 협력하여 완성했다. 분단이라는 정치적 대결 구도에도 1961년 1월에 《독일어 사전》의 마지막 분책인 380번째 분책(‘Widrig’에서 ‘Wiking’)이 출간될 수 있었다. 10년 후 대략 2만 5,000개의 표제어가 수록된 출처 표시 목록이 33번째 책으로 출간되었고, 이로써 《독일어 사전》은 일시적이지만 끝을 맺게 되었다. [표 1]은 122년에 걸친 《독일어 사전》 편찬 역사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Schares 2005:8).

2.4. 개정 작업

《독일어 사전》이 처음 출판되고 7년 뒤인 1861년 12월에 야코프 그림은 독문학자인 카를 바이간트가 수집한 용례에 대해 감사하는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이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되고 있다.

저는 당신의 순수하고 정확한 용례들이 충심으로 필요합니다. 나중에 도착한 몇몇 용례 쪽지는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인쇄된 사전을 한번 보신다면 추가분이 얼마나 많아야 하는지 금방 알아챌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책은 추가분의 특성에 따라 개정판에서 비로소 잘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바이간트에게 보낸 그림의 1861년 12월 21일 자 편지, Briefe der Brüder Grimm an hessische Freunde, Gesammelt von E. Stengel, Marburg, Nr. 187, 1886:377).

《독일어 사전》은 초판 작업에서 독일어 어휘를 미지의 넓이와 역사적 깊이로까지 개척하였다. 그렇지만 1961년 사전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의 시점에서 보면 ‘A’부터 ‘Frucht’까지의 서술은 거의 100년 전의 상황을 표현한 낡은 것이었다. 역사적 사전에 대한 형식적인 요구와 변화된 내용의 수용에 대해 《독일어 사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더 이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그 밖에도 표제어 수용의 완고함, 부족한 의미 세분화 내지는 표제어 서술 구조의 비통일성, 그리고 가끔 나타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술 스타일 등이 개정의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여기에 외래어의 경시와 시대착오적 지식 수준 혹은 부족한 언어학적 보조 수단에 기인하는 부정확성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결국 각 표제어

집필 시점과 사용 시점의 시간상 간격의 결과로서 서술된 어휘의 용례에서 현재 상황과는 큰 갭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것이 앞서 발행된 부분의 사용을 제한하게 만들었다.

《독일어 사전》을 계속 학문적 토대로서 유지하기 위해 우선 그림 형제에 의해 집필된, 가장 오래된 부분인 'A'에서 'F'까지에 대한 개정이 1957년 결정되었다. 작업은 초판이 끝나자마자 시작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출간된 책을 모델로 하지만, 짧게 압축하여 서술해야 했다.

1963년 야코프 그림 사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베를린학술원 주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계획된 개정을 위한 실험 표제어를 담은 소책자가 제시되었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A'에서 'C'까지의 개정은 베를린 편찬소가 맡고, 'D'에서 'F'까지는 괴팅겐 편찬소가 맡기로 했다. 1950년대 초기에 시작되었던 새롭고 광범위하며 균형 잡힌 어휘 아카이브를 위한 용례 수집은 위에 제시된 알파벳 영역으로 제한되었다.

동·서독 통일 후에 베를린 편찬소는 엄격한 콘셉트를 지니고 개정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것은 효율적인 작업 조직, 추가 조사의 제한, 대표성이 있는 표제어만으로 감축, 역사와 용례의 집중적 서술 등을 위한 조치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런 가속화 조치 덕분에 베를린 편찬소는 원고 수합 양을 배가할 수 있었고 매년 처리되는 자료의 양과 작업 속도 역시 배로 늘릴 수 있었다.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A'에서 'F'까지의 개정 작업은 76편의 원고를 담은 9권 분량의 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중 39편의 베를린 분책은 'A'에서 'C'까지 5권으로, 37편의 괴팅겐 분책은 'D'에서 'F'까지 4권으로 예상하고 있다. 간결하게 줄인다는 원칙에 따라 편집하는데도 개정판은 초판에 비해 250% 이상 그 내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어 사전》의 개정판은 1965년 이래 개별 분책 형태로 히르첼 출판사(Hirzel Verlag, www.Hirzel.de)에서 출간되고 있다. 베를린과 괴팅겐 편찬소는 현재 매년 160단 분량의 분책을 완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정판 A에서 F까지로 계획된 개정판의 3분의 2 이상이 현재까지 출판되었다. 개정판의 베를린 분책들은 1993년 이래 디지털 형태(www.dwb.uni-trier.de)로도 제공되고 있다. 그 밖에도 베를린 용례 쪽지 아카이브의 자료들도 디지털로 바꾸어 보존될 것이다. 전자 표제어 목록과 연결되는 이런 디지털 용례 아카이브는 사전 서술에서 인쇄 매체나 간결하게 서술하는 원칙이 요구하는 제한 요소들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만들 것이다.

3. 《독일어 사전》의 콘셉트와 서술 대상

개정 1권의 머리말 시작 부분에 《독일어 사전》의 전체적인 콘셉트가 간단명료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림 형제의 기본 사고에서 출발하여 마지막으로 출간된 권들과 연계된 개정판은 15세기 중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지 독일어 문어의 단어를 모든 언어적 일반 현상으로 가능한 한 완벽하게 기재하고 있다(《독일어 사전》 개정판 1권, ‘A’~‘AFFRIKATA’, Leipzig, 1983:3).

따라서 서술의 대상은 대략 서적 인쇄의 시작에서 개정 작업을 하는 각 권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어로 사용된 고지 독일어 어휘이다. 이것

은 전문어나 특수어 어휘 혹은 외국어에서 유래한 단어들인 일상적인 언어 사용으로 다소간 퍼졌거나 퍼지고 있는 단어들 포함한다. 《독일어 사전》은 일차적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추적하는 ‘용례 사전’이다. 즉, 처음부터 최근까지의 용례를 통해 단어 의미의 형성과 변화가 분석되며, 연대기적·체계적인 순서로 기록되고 설명되며 역사적 출처 텍스트에서 선별된 용례를 통해 그 의미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 그 외에도 사전은 유래와 친척 관계에 있는 어휘, 다시 말해 어원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어휘의 근대 고지 독일어와 그 이전 단계의 정보도 제공한다. 그리고 그 단어의 지역적 전파와 그 밖의 사용 유형 등을 용례 형태로 제공한다. 사전은 언어학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사전 제작을 위한 기본 토대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문헌학적이며 역사적인 분야에서 보다 넓은 사용자 그룹을 독자층으로 설정하고 있다.

베를린 편찬소의 용례 아카이브는 ‘A’에서 ‘Z’까지 전체 알파벳에 400만 개 이상의 용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300만 개가 알파벳 ‘A’에서 ‘C’까지의 영역이다. ‘D’에서 ‘F’까지를 소장하고 있는 괴팅겐 아카이브는 약 240만 개의 용례를 모아 놓고 있다. 그림 형제는 시작 단계에서 ‘A’에서 ‘Z’까지 약 60만 개의 용례를 수집했다. 초판의 1권에서 3권까지 출처 목록이 대략 1,600편의 문헌을 소개하고 있다면 새로운 베를린 용례 수집은 특히 15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4,000개 이상의 출처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순수 문학 이외에도 연대순의 텍스트, 법률 텍스트, 전단지, 신문, 편지, 일기, 실용서와 전문서 등에서 발췌한 것으로 텍스트 종류의 넓은 스펙트럼도 보여 준다. 인용된 출처는 총 1만 개를 넘는다. 용례 쪽지 아카이브 외에도 최근에는 시디롬이나 온라인 디비상에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문치도 이용된다. 편찬소의 도

서관에는 발췌된 용례의 출처에 대한 검증을 위해 오리지널 텍스트가 비치되어 있다. 약 1만 4,000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는 15세기에서 현재까지 모든 종류의 사전들이 있으며 작업 영역을 위한 광범위한 참고 서적도 비치해 놓고 있다.

4. 《독일어 사전》의 수용과 반응

독일의 사전 편찬 역사에서 《독일어 사전》만큼이나 매스컴의 주목을 받은 사전은 없다. 《독일어 사전》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은 사전이 완성된 해인 1961년과 문고판이 나온 1984년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언론인 에케하르트 벨리히가 사전 편찬 직원인 테오도르 콕스와 한스 노이만과 벌인 논쟁이 유명하다. 벨리히는 많은 기고문에서 《독일어 사전》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그는 《독일어 사전》에 기재된 용례의 출처를 밝힌 문헌들의 목록을 제시하며, 사전의 독일적·민족적 성향이 너무 지나치며, 반유대적 뉘앙스를 지니고, 사회주의나 좌파 자유주의 작가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Boehlich 1961:43). 그는 또한 표제어, 특히 차용어와 외래어의 선택을 특정한 사전 편찬자 개인이 지니는 이데올로기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K’를 작업한 힐데브란트의 경우 ‘Kanone(대포)’, ‘Kaserne(병영)’, ‘Kampanie(회사)’는 표제어로 선택된 반면, ‘Katastrophe(재앙)’, ‘Kausalität(인과 관계)’, ‘Kultur(문화)’는 선택되지 않았으며, 모리츠 하이네에 의해 편찬된 구간에는 ‘Literatur(문학)’, ‘Logik(논리학)’, ‘Methode(방법)’, ‘Metaphysik(형이상학)’ 등이 표제어에서 빠져 있다. 반면 나치 작가들의 용례가 포함된 표제어도 있으며, ‘Westen(서쪽)’과

‘westlich(서쪽의)’ 같은 표제어에는 일방적인 동독의 시각도 여과 없이 기재되었다는 주장이었다. 빌리히의 비판에 대해 콕스와 노이만은 사전이 학술적 기록 문헌을 원본 그대로 용례로서만 사용했다고 반박하며, 용례가 정치적 고백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이만은 유대인으로서 나치로부터 받은 박해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반박은 한층 더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Neumann & Kochs 1961).

실제로 그림 형제는 당대 좌파 문학, 예를 들면 청년독일파에 속한 하이네, 뵘네, 라우베 등의 문학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사전의 용례로 그들의 텍스트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림 형제는 거부 이유로 ‘언어 위력(Sprachgewalt)’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내용이나 정치적 동기가 분명히 개입되었을 것이다. 몇몇 반유대적 정보나 용례들이 반유대주의가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었을 때인 1900년경 저술된 《독일어 사전》의 분책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것도 《독일어 사전》이 지니고 있는 숙명적 단점이다.

5. 나오며

동베를린에서 베른하르트 베크만은 흥분한 상태에서 괴팅겐에 있는 동료 테오도르 콕스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친다.

오늘, 1961년 1월 10일, 화요일 정확히 17시에 최종 교정지가 인쇄
소로 넘어갔습니다.

무려 122년에 걸친 《독일어 사전》이 완성되는 순간을 《슈피겔》은 위와 같이 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독일어 사전》의 편찬 작업은 그림 형제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중국에는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 나치 독재 시대, 동·서독 분단과 대결 구도 등의 역사적 상황을 극복하며 결국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는 해에 완결되었다. 그런 만큼 《독일어 사전》은 시대의 사건과 유행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이 엄청난 작품이 지나는 많은 결점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Kultur(문화)', 'Logik(논리학)', 'Methode(방법)' 등의 어휘는 그 사용 범위가 필수 어휘에 속할 정도이나, 《독일어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실로 놀라울 따름이다. 이 모든 단점에도 그림 형제의 《독일어 사전》이 오늘날 독일어의 발전, 나아가서는 독일 민족의 통일과 정체성 확립에 일조한 공적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언어 사전, 어원사전, 문체 사전 등 언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들은 《독일어 사전》이란 위대한 작품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쉽게 나오긴 힘들었을 것이다. 용례 사전이 지닐 수밖에 없는 많은 단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일어 사전》은 실로 독일 민족 언어생활의 산 증거이며 독일어의 보고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Boehlich, W.(1961), Eine Pyrrhussieg der Germanistik. *Der Monat* 13/1960/61, Heft 154, 38~53.
- Freytag, G.(1902), *Briefe an Salomon Hirzel und die Seinen*. Mit einer Einleitung von A. Dove.
- Haß-Zumkehr, U.(2001), *Deutsche Wörterbuch - Brennpunkt von Sprach - und Kulturgeschichte*, Berlin/New York.
- Ippel, E.(Hrsg)(1886), *Briefwechsel zwischen Jacob und Wilhelm Grimm, Dahlmann und Gervinus*. Bd. 2, Berlin.
- Jacob und Wilhelm Grimm(1984), *Deutsches Wörterbuch*.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München(문고판 그림의 《독일어 사전》).
- Kirkness, A.(1980), *Geschichte des Deutschen Wörterbuchs. 1838 -1863. Dokumente zu den Lexikographen Grimm*. Mit einem Beitrag von Ludwig Denecke. Stuttgart.
- Neumann, H. & T. Kochs(1961), Religion -ja, Manöver -nicht, Das Deutsche Wörterbuch und seine Kritikaster, *Der Monat* 14/1961/62, Heft 158, 54~61.
- Schares, T.(2005), *Untersuchungen zu Anzahl, Umfang und Struktur der Artikel der Erstbearbeitung des Deutschen Wörterbuchs von Jacob Grimm und Wilhelm Grimm*, Dissertation Uni Trier.
- Schmidt, H.(1986), *Wörterbuchprobleme. Untersuchungen zu konzeptionellen Fragen der historischen Lexikographie*, Tübingen.